일간경기

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 하반기 운영대의원회서 내년 사업 논의

김희열 기자 | 승인 2026.11.26 17:5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수원지사가 11월 26일 운영대의원회에서 올해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사업·예산 계획, 영농급수 준비 계획을 논의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수원지사)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수원지사가 11월 26일 운영대의원회에서 올해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사업·예산 계획, 영농급수 준비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는 화성수원지사 회의실에서 '2026년도 하반기 운영대의원회'로 열렸다. 운영대의원회는 지역 여건과 유역·수계에 대한 이해, 농어업 전문성을 갖춘 농민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반기별 1회 열린다.

참석자들은 올해 추진한 △안전대책 강화 △가뭄·집중호우 선제 대응 △농지은행 서비스 개선 △농지 전수조사 등의 성과를 점검했다. 내년도 신규 사업과 지구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농업 현장 여건을 반영한 사업 추진 방안과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이승철 지사장은 "지역 농업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영농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희열 기자 kimhy3668@hanmail.net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